

예담채 '5년차 소비자 선정 브랜드'

올해의 브랜드대상 시상식서 5년 연속 수상 '십리향미' 전북 대표 최고급 쌀 육성기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가 지난 2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 '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발한 '예담채'는 전북 도내 13개 시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북 대표 브랜드로서, 전북농협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관리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담채'는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장관상을 3년 연속(2014년~2016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2015년~2017년) 수상한 것과 더불어 급차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도 5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광역브랜드로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

광역공동브랜드부문 대상을 수상한 '예담채'는 지난 2008년 원예농산물 브랜드 출시 이후 3년간 농가 맞춤형으로 조직화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2020년부터는 전북도에서 10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최고급 쌀 '십리향미(향미)'까지 품목을 확대·출하고 있으며, '예담채' 브랜드로 전북 쌀의 경쟁력을 키워 전북을 대표하는 최고급 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가 지난 2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 '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 우수농산물을 도 단위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

지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담보하여 전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는 브랜드로 정착시킴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전북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매월 수도권 및 영·호남 하나마트 및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중·소형마트(빅마켓, 메가마트, 서원유통 등)에서 통합 관측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유명 박람회 등에 참가해 소비자는 물론 유통 바이어들에게까지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지 생산 농가의 조직화 및 물량의 규모화를 기반으로 지역 및 품목 단위 통합마케팅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제고해 산지 및 소비자시장의 수급 및 가격 조절 기능 등으로 전라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김윤상 기자

디지털 장비 교육 '무료'

경진원,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 통해 UV평판프린트·3D프린터 교육과정 마련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하반기부터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를 통해 UV평판프린트와 3D프린터 사용법 등 디지털 장비 무료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아이디어를 바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첨단 장비가 갖춰진 '똑딱365'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경진원이 도내 메이커 문화 확산과 메이커 창업 육성을 위해 만든 공간으로, 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현실화하는 창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에서는 하반기 총 15회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디지털 장비 사용 기본 교육: 레이저 조각기, UV프린터, 진공형성기 등 메이커 5종 장비 운용 ▲탄소복합재: 전도성 유 핸드레이업 공법의 이해, 인퓨전 공법의 이해, 프리프레스 공법의 이해, 성형 프레스 공법의

이해 ▲시제품 제작: 제품 디자인 및 설계 기초교육(fusion360), 전기 전자 회로설계 기초과정, 아두이노 무료 응용제어(atmega328) ▲시제품 제작(실전): 전기 전자 회로설계 실전 과정,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제어 실전 과정으로 이루어진 실습 교육이다.

경진원 담당자는 "이번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 메이커 교육을 통해, 도내 전문 메이커 양성 기반 마련 및 예비창업자들의 메이커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효과적으로 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www.maker365.kr)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똑딱365 교육담당자 ☎ 063-219-3597)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지역 자율형 수출바우처 11개사에 3억원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 5월 21일 지역 자율형 수출바우처사업 모집 결과 최종 11개사를 선정해 3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역 자율형 수출바우처 사업은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동일한 형태이나 전북지역 경기 상황을 감안해 위기 지역(군산), 위기 업종(자동차)을 우선 선정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업체별 24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바우처를 지급하며,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통해 국제운송비, 수출 전략,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 13개 분야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실적이 전무한 내수기업부터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의 성장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최근 급격한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제운송료를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수출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2차 수출바우처 사업 등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노지 디지털기술 시연

하태웅 농촌진흥청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장, 서춘수 함양군수가 지난 2일 김제시 백산면 현장실증포장에서 열린 '노지 디지털 영농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노지 디지털기술 시연과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남미 3개국과 농업기술 상생 협력 논의

농진청, 코스타리카 등에 농업협력사절단 파견 9일 파테말라서 '한-중미 북부 농업협력포럼'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하태웅)은 외교부와 함께 정부 합동 농업협력사절단(단장: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연 국장, 이하 사절단)을 구성해 5일부터 12일까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테말라 3개국에 파견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지난 4월 외교부 제차관의 중남미 방문을 계기로 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적극 희망해 온 디지털·친환경 농업기술 협력 및 농촌사회 발전 지원 요청 등에 부응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난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지난달 25일 열린 제4차 한·중미통합경제(SICA)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한국의 중미 북부 삼각지역 국가들에 대한 기여 증대 ▲대 중남미 디지털·녹색협력 확대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방문 3개국 농업장관 예방 및 농업 분야 정부 간 고위급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농업기술 ▲농촌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 ▲농축산품 가공·처리 등 수출 역량 강화 ▲연구개발 및 교육·학술 협력 등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파테말라에서는 9일 중미 북부 3개국(파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농업부 장관·차관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중미 북부 농업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 이성호 외교부 경제조정관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녹색·디지털 파테말라 강화를 위한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중미 북부 3개국 사회 안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참석자들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토양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기후변화·식량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중미 북부 3개국들과 농업분야에서 다양한 양·다차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 산림청은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중미 북부 지역 산림 황폐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감소에 대응하는 조림사업 추진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한미 정상회담, 한·스페인 정상회담, 한·SICA 정상회의 등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표명한 우리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농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의 친환경·디지털 농업기술 역량과 중남미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연계한 중남미와 상생 협력을 제고하고, 제2차 서울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선도하는 우리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상 기자

김현수 농식품부장관, 남원 농어촌공 방문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난 1일 오후, 지난해 남원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식강 발달로 침수 피해를 입은 귀사배수장(금치면 하도리)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충호 지사장으로부터 배수장 피해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장미를 앞둔 시기에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 체계 구



축과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의한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며, 배수로 퇴적

물과 수초 제거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장비를 이용한 제거작업을 살펴보았다.

현재 남원지사는 작년 발생된 수해 복구를 위해 총사업비 89억원을 투입, 본격적인 정비작업을 앞두고 사업 준공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한편 김현수 장관은 "해년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폭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니 철저한 사전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안전한 영농환경과 농업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관리에 노력하는 공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남원=김기복 기자

이사회 직원 참관제 신설 '한목소리'

전기안전공사 정기 이사회서 ESG 경영 추진계획 보고받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환경 복원과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실천을 아우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ESG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전 등을 심의, 의결하고 그 첫 회의를 가졌다.

이사회와 함께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 참석위원들은 공사가 마련한 ESG 경영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이사회 직원 참관제' 등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향후 이사회에 오르는 모든 부의 안전에 대해서는 ESG 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기준을 적용 심의하기로 하고 ESG 경영추진계획의 이행 현황 등을 정례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지현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깨끗

한 환경을 위한 녹색경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임경영,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공민과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선도적인 성과 사례를 만들어 ESG 경영이 공공 부문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공사 노사는 지난 6월 열린 창립 57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과의 세 가지 약속을 담은 ESG 경영 비전(깨끗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클린 케소크)을 함께 선언한 바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최근 ESG 경영계획을 이끌어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발전설비 미세먼지 감축', '용역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등 20개 세부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앞으로 전기안전계 전문가와 국민 제안 의견을 반영해 분야별 개선 과제에 함께 찾아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기 이사회를 연 가운데 박지현 사장(왼쪽 네번째)과 공사 위원, 비상임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 방안 논의

개발청, 워크숍 개최 투자유치 실무특강도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관계 기관과 함께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2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새만금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전북도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날 워크숍은 담당자 역량제고, 상호 정보공유, 투자여건 개선 방안이다

는 3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코트라(KOTRA)의 인명현 선임전문위원은 외투기업 유치 경험을 토대로 투자협약(MOU), 기밀유지협약(NDA)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실무 특강을 통해 투자유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새만금개발청 김준성 계획총괄과장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유치 성과는 과감한 신산업 특구 도입과 관계기관들의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 중 중요한 과제는 세부 도입방안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